

- 주요 뉴스: 연준의 주요 인사, 지속적인 금리인상 강조, 일부 과도한 긴축 관련 우려도 제기
 - 미국 지역 연은 경제보고(베이자북), 경제성장 기대는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은 둔화
 - EU,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 적용 검토,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중단 경고
 - 중국 8월 수출입, 모두 전월비 큰 폭 둔화. 대내외 수요 부진 등이 원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주요 국채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8%], 달러화 약세[-0.3%], 금리 하락[-9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그 동안의 하락이 과도했다는 평가 등으로 매수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원자재 관련주 약세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ECB의 큰 폭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이 반영
 유로화가치는 1.0% 상승, 엔화는 0.7%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저가 매수 유입 등이 배경
 독일은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6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373.8원, -10.4원) 0.7% 하락, 한국 CDS 하락

		9/7일	9/6일	전일대비			9/7일	9/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79.9	3,908.2	1.83%	국채 금리 10y	미국	3.26%	3.35%	-9bp
	유럽	412.01	414.38	-0.57%		독일	1.58%	1.64%	-6bp
	중국	3,246.3	3,243.4	0.09%	CDS 5y	한국	31bp	33bp	-2bp
	일본	27,430	27,627	-0.71%		중국	70bp	72bp	-2bp
	한국	2,376.5	2,410.0	-1.39%	위험 지표	EMBI+	-	436	-
환율	달러지수	109.84	110.21	-0.34%		VIX	24.64	26.91	-8.44%
	유로화	1.0006	0.9904	1.03%		WTI유	81.94	86.88	-5.69%
	엔화	143.74	142.80	-0.65%	원자재	구리	343.8	346.9	-0.89%
	위안화	6.9656	6.9545	-0.16%		금	1,718.4	1,702.1	0.95%
	원화	1,384.2	1,371.7	-0.9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의 주요 인사, 지속적인 금리인상 강조, 일부 과도한 긴축 관련 우려도 제기

-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릴 때까지 통화긴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언. 인플레이션이 목표(2%)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을 줄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
- 다만 이러한 통화긴축 노력이 일정 시점에는 경제성장에 위험이 되고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한편 최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전 경기하강 시기에 비해 향후 고용 부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
- 클리블랜드 연은의 메스터 총재는 강한 노동시장 덕분에 경기침체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연준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하며, 이로 인해 금융긴축 심화 및 성장 둔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연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향후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
- 리치몬드 연은의 바킨 총재 역시 경제활동 둔화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안정을 확신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높여야 한다는 의견 피력.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금리를 0%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지역 연은 경제보고(베이지북), 경제성장 기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은 둔화

- 고물가가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경제활동은 다소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 한편 물가는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나, 12개 중 9개 지역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 노동시장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진단

■ 미국 재무장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투자를 국내 전역에서 진행할 계획

- 엘런 장관은 기술, 청정에너지, 인프라 관련 투자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내 전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 또한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성장과 공정'이며, 이는 각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

■ EU, 러시아산 가스 가격 상한제 적용 검토.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중단 경고

-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제안하며, 이는 러시아의 전쟁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역내 전기 사용 감축과 일부 전력업체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한 등도 필요하다고 첨언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산 에너지에 대한 수출 가격 상한제 논의는 어리석은 시도이며, 오히려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유럽은 큰 경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2위의 원유 수출국

■ 영국 중앙은행 총재,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필요

- 최근 물가가 급등했으나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패한 것은 아니며, 금리인상 기조 유지를 통해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발언.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위험이 된다고 지적

■ 중국 8월 수출입, 모두 전월비 큰 폭 둔화. 대내외 수요 부진 등이 원인

- 해당 수출은 전년동월비 7.1% 증가하여 전월(18.0%) 대비 부진. 이는 4월 이후 첫 하락세. 다른 경제 부문에 비해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하지만 인플레이션 및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대외 수요 둔화 등이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수입 역시 전월비 0.3% 증가하여 전월(2.3%) 대비 낮은 수준. 코로나 19 봉쇄 및 가뭄 등으로 인한 국내수요 위축 등이 배경. Jones Lang Lasalle의 Brue Pang은 최근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간 내에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0.75%p 인상하여 14년래 최고 수준인 3.25%로 결정

- 최근 인플레이션 여건을 고려하면,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면서 4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 또한 고물가 고착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무역수지(억달러): -707, 6월(-809), 예상치(-703)

■ 주요 경제 이벤트(9/8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강연, ECB 통화정책회의 및 라가르드 총재 회견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과거와 경제여건이 달라 경기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 - WSI

(The Case for a Soft Landing: How High Inflation Could End Without Recession)

- 2차 대전 이후 최근과 같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던 시기에는 모두 경기침체가 발생. 이에 이번 경기 하강기에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편
- 그러나 지금은 과거보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 이전보다 덜 강력한 통화긴축을 통해 물가안정이 가능. 중고차 가격이 시사하는 것처럼 연준의 조치 없이 공급망 교란 완화를 통해서도 인플레이션이 둔화. 아울러 견조한 노동시장과 민간부문의 양호한 재무상태 역시 경기 연착륙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

■ 미국의 내년 기업실적, 금리상승 및 재정적자 축소 등으로 악화 예상 - Financial Times

(The risk to earnings)

- 최근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우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가격결정력 유지로 양호한 실적 전망이 지속.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리상승과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 등으로 기업실적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추정
- 정부지출은 통상적으로 가계소비를 통해 기업이익으로 전환되기에, 만일 재정적자가 축소되면 향후 기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또한 최근 양호한 기업실적은 인플레이션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존재. 이에 더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관련 기업 이익이 폭증해 여타 부문의 부진이 부각되지 않는 왜곡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

■ 미국 주택시장, 규제와 낮은 레버리지 등으로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 - 블룸버그

(It's a Housing Slump, Not a Crisis)

■ ECB, 큰 폭 금리인상 단행하면 역내 금융시장 분절화 심화될 소지 - Financial Times

(A forceful ECB rate rise may fail to curb market tensions)

■ G7의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 상한제, 러시아 보복으로 가격 안정은 기대난 - Financial Times

(The G7 price cap could make the energy crisis wors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